

“연기 슬럼프에 선물처럼 만난 작품”

‘이브’ 유선, 재벌 사모님 연기

“천진한 면 지닌 상류층 악역”

“21년 정도 연기를 했는데, 슬럼프가 왔어요. 제 연기가 답답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이브’ 대본이 들어왔는데 선물 같았죠.”

일일연속극에서 순하고 착한 딸딸이나 머느리 이미지가 강했던 배우 유선(46)이 최근 종영한 tvN 수목드라마 ‘이브’에서 막돼먹은 재벌가 사모님으로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유선은 히스테리한 악역 연기로 호평을 받은 소감을 묻자 “연기 확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다”며 감격스러워했다.

2001년 MBC ‘베스트극장’으로 배우 데뷔를 한 유선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얼굴이지만, 뚜렷한 개성을 가진 연기자는 아니었다. 어떤 배역을 맡아도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연기로 극을 완성했지만, 스스로 연기자로서 자신의 한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유선은 “저 스스로 연기자로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내 역량이 여기까지인지 확인하는 갈림길에 섰던 순간에 표현할 방법이 너무 다양한 캐릭터인 한소라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서 혼자 사전 리허설도 수없이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열심히 하면 그만큼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작품”이라고 말했다.

유선이 연기한 한소라는 정·재계 최고의 권



배우 유선 /블레스이엔티 제공

력자로 군림하는 한판로의 외동딸이자 LY그룹의 안주인이다. 아랫사람은 물론 주변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불같이 성질을 내는 안하무인 캐릭터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 ‘펜트하우스’ 등에 등장했던 전형적인 사이코 패스에 가까운 상류층 악역 스타일이기에 자칫 비슷한 캐릭터들의 향연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유선 역시 이를 걱정했는데, 한소라에게서 다른 상류층 악역 캐릭터에는 없는 ‘천진함’이라는 특징을 발견했다고 했다.

유선은 “그동안 상류층 악역을 임팩트 있게 (강렬하게) 연기한 배우들이 많아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 겁이 나기도 했다”며 “한소라는 지능적이고 교활한 악녀라기보다는 최고만을 고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살아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 같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에는 한소라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해온 서사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 한소라에게 남편 강윤겸(박병은)은 도피처이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상이었다. 유선은 강윤겸을 향한 한소라의 마음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감정 연기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했다.

유선은 가장 감정을 많이 쏟았던 장면으로도 마지막 회 강윤겸의 변호사가 전화로 이혼 통보 사실을 알린 순간을 꼽았다.

그는 “한소라에게 이혼은 절벽에 떨어질 듯 간당간당했던 사람을 밀어버린 것”이라며 “그 초라함을 견디지 못해 광기에 휩싸여버리는 한소라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불쌍하기도 했다”고 안쓰러워했다.

유선은 시청자들도 한소라가 왜 제멋대로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강윤겸에게 절박하게 매달렸는지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소라는 욕망을 배출하는 잘못된 방법을 보여줘요. 성장 배경이 그런 것을 정당화하는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개연성을 가졌으면 했어요. 저한테는 한소라의 순간순간이 모두 절절하고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보내줘야 하는데 발걸음이 잘 안 떨어져요.”

‘외계+인’ 개봉 일주일째 관객수 100만명 넘겨

2부 내년 공개 예정

최동훈 감독의 SF액션 ‘외계+인’ 1부가 개봉 일주일째인 26일 오전 누적 관객수 100만 명을 넘겼다고 배급사 CJ ENM이 전했다.

‘외계+인’은 전일까지 관객 99만6,000여 명을 동원한 데 이어 이날 오전 4,000여 명을 추가했다.

‘외계+인’은 지난 20일 개봉 이후 6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으나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2’에 바짝 추격당하고 있다. 같은 날 개봉한 ‘미니언즈 2’의 전일까지 관객수는 91만3,000여 명이다.

올여름 한국영화 대작 네 편 가운데 첫 주자로 나선 ‘외계+인’은 초반 저조한 성적으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오전 현재 예매율에서는



외계+인 /CJ ENM 제공

개봉을 하루 앞둔 이순신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이 45.8%로 ‘외계+인’ (11.8%)을 크게 앞서고 있다. ‘외계+인’은 제작비가 1부만 330억원, 손익분기점은 700만 명을 웃돈다.

함께 촬영해 후반작업 중인 2부는 내년 개봉을 예고한 상태다.

JYP, 미국 레이블 손잡고 글로벌 걸그룹 육성

데뷔 프로젝트 ‘A2K’ 선봬 예정

JYP엔터테인먼트(JYP)가 미국 현지 레이블과 손잡고 K팝 시스템에 기반해 세 걸그룹을 육성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JYP는 미국 유니버설 뮤직 산하 리퍼블릭 레코드와 협업해 미국과 캐나다 등 영어권 중심으로 활동할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A2K’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JYP는 데뷔 후보생 선발을 위해 9월 10일 (이하 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를 시작으로 14일 시카고, 17~18일 뉴욕, 20일 댈러스, 23~25일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5개 도시에서 오디

션을 열 예정이다.

오디션을 통과한 후보생들은 이후 한국 JYP 본사에서 트레이닝을 받는다.

JYP와 협업하는 리퍼블릭 레코드는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나 그란데, 위켄드 등이 포진한 레이블이다.

JYP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은 “A2K는 저와 JYP에 가장 큰 프로젝트”라며 “K팝 시스템을 통해 미국 아티스트를 만드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것 외에도 나 역시 미국의 모타운 레코드(Motown Records)를 기반으로 JYP를 설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스 앤 로지스’ 일본공연 포스터에 욕일기 눈살

서경덕 “삭제하라”

‘아메리칸 하드 록의 자존심’으로 꼽히는 밴드 ‘건스 앤 로지스’ (Guns N’ Roses)가 일본 공연을 앞두고 공개한 소셜미디어(SNS)에서 욕일기 문양을 사용한다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삭제하라”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밴드는 최근 SNS에 오는 11월 일본 공연 포스터를 공개했고, 이곳에 욕일기 문양을 삽입했다.

이에 서 교수는 “일본의 ‘욕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고 밝힌 뒤 “그 문양을 하루빨리 삭제, 혹은 교체해 아시아 팬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지 않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항의 메일에는 욕일기가 전범기임을 알리는



스 앤 로지스가 일본 공연을 앞두고 SNS서 공개한 욕일기 문양 사용 포스터

/서경덕 교수 제공

영역 영상도 첨부했다. 그는 “세계적인 팝스타와 록밴드가 최근까지도 욕일기 문양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가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항의로 욕일기 퇴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영우’로 핫채널 부상 ENA 라인업 강화

로맨스·코믹 등 탐정수사 다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인기가 급상승한 케이블 채널 ENA가 하반기 다채로운 장르의 드라마를 선보인다.

ENA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후속작인 정일우·권유리 주연의 ‘굿잡’을 비롯해 이다희·최시원 주연 ‘열어죽을 연애따위’, 채종협·서은수·박성웅 주연 ‘사장님을 잠금해제’ 등을 하반기에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굿잡’은 특별한 능력을 갖춘 두 남녀가 펼치는 로맨틱 수사극이다.

재력을 갖춘 재벌타정 은선우(정일우 분)와

뛰어난 시력을 가진 초시력자 취업준비생 돈세라(권유리)의 탐정 수사를 그린다.

‘열어죽을 연애따위’는 30대 두 남녀의 로맨스를 그린 작품으로 ‘막돼먹은 영애씨’, ‘식사를 합시다’, ‘혼술남녀’의 최구식 감독과 ‘잡니다 천리마 마트’를 집필한 김솔지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최시원과 이다희가 로맨스 호흡을 맞춘다.

‘사장님을 잠금해제’는 네이버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스마트폰에 갇혀버린 사장 그 스마트폰을 주운 뒤 진실을 파헤치게 되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채종협, 서은수, 박성웅 등이 캐스팅됐

다.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 홈’의 공동 극본을 집필한 김형민 작가가 극본을, 영화 ‘오케이 마담’의 이철하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ENA는 지난 23일에는 군대를 배경으로 한 신작 드라마 ‘신병’을 선보였다.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장빠주의 동명 애니메이션 드라마를 실사화한 작품으로 군대에 신병이 입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다.

ENA는KT그룹의다중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스카이TV의 메인 채널로 2004년 개국했다. 스카이TV는 ENA를 포함해 총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통합뉴스룸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통합뉴스룸 10:00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10: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1:00 아수 픽 쌤과 함께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볼만한 아침 1부 8:10 해 볼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오라차 내 인생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정크스의 연인	6:00 뉴스타데이 1부 6:25 뉴스타데이 2부 7:50 생방송 오늘 아침 8:50 비밀의 집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푸르기 식사교실 11:30 글로벌 동물 뉴스 11:45 치치뽀뽀 시즌4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애니갤러리 11:30 슈퍼다이스 11:45 헬로키티 2분바	6:10 세계테마기행 7:00 두디다콩 7:15 티시테시 8:00 당동명 유치원 8:20 한글용사 아이야 9:05 빅블루 9:20 연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극한직업 1:50 EBS 다큐프리임 2:45 연마를 찾자마 3:35 안전채널e 3:40 지식채널e 4:05 영어스토리 타임 4:15 페피피 5:00 EBS 뉴스 5:45 시흥 6:00 생방송 뚝지 해결단 6:45 티타임 쿠키 7:30 한국의 둘레길 7:50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당신은 몰랐던 20대 이야기 '3부' 11:35 위대한수업 그레이트마인즈 11:55 클래스e
12:00 통합뉴스룸 1:00 올레이즈 7000 1:50 생활의발견 스페셜 2:00 국회 대정부 질문 4:00 사시간전 5:00 통합뉴스룸 5:30 동물의 왕국	12:15 정크스의 연인 1:30 세상을 건다 스페셜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0 KBS 뉴스타임 3:10 캐치 티니핑 3:30 TV 유치원 4:00 신상출시 팬스토랑 5:00 도깨비언덕에 왜 왔니? 5:15 뽀짝뽀짝 포크가족 5:30 골편 영화가 좋다 5:50 통합뉴스룸ET	12:00 12 MBC 뉴스 12:20 호적메이트 스페셜 1:50 2시 뉴스 오전 2:30 국회대정부 질문 3:55 기분 좋은 날 4:55 5MBC 뉴스 5:10 PD 수첩	12:00 SBS 12 뉴스 12:50 골 때리는 그녀들 2:00 뉴스브링 4:00 와이드 정보쇼 알고 보면 5:00 골 때리는 외박	12:00 EBS 뉴스12 1:50 EBS 다큐프리임 2:45 연마를 찾자마 3:35 안전채널e 3:40 지식채널e 4:05 영어스토리 타임 4:15 페피피 5:00 EBS 뉴스 5:45 시흥 6:00 생방송 뚝지 해결단 6:45 티타임 쿠키 7:30 한국의 둘레길 7:50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당신은 몰랐던 20대 이야기 '3부' 11:35 위대한수업 그레이트마인즈 11:55 클래스e
6:00 6시 내고향 7:00 통합뉴스룸 7:40 일꾼의 탄생 8:30 오라차 내 인생 9:00 통합뉴스룸 10:00 생로병사의 비밀 10:55 더 라이브 11:30 통합뉴스룸	6:30 2TV 생생정보 7:50 황금가면 8:30 옥탑방의 문제아들 9:50 정크스의 연인 11:00 요즘 것들이 수상해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비밀의 집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전설가리 울안원 10:30 라디오스타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골 때리는 그녀들 10:40 골 때리는 외박	43년생 애정 운이 좋아지는 운세이다. 55년생 지금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67년생 하는 일마다 손재수가 있겠다. 79년생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이다.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7월 27일 (음력 6월 29일)
 子 48년생 기호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60년생 조용히 실속만 챙겨라. 72년생 음지가 양지되는 날이다. 84년생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라.	 辰 52년생 만사형통하는 좋은 날이다. 64년생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76년생 부질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라. 88년생 경사가 겹치는 날이다.	 申 44년생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생길것다. 56년생 사랑한다면 믿어라. 68년생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줘라. 80년생 이성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겠다.
 丑 49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 61년생 기대도 못한 월척을 낚는다. 73년생 적당한 선에서 타협함이 이롭다. 85년생 명성을 크게 떨치게 될 운명이다.	 巳 41년생 수고는 많으나 도무지 결실이 없다. 53년생 자신감이 지나지면 낭패를 본다. 65년생 돈이 인생의 전부 아니다. 77년생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	 酉 45년생 절대 시비에 휘말리지 말라. 57년생 업무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났다. 69년생 망설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81년생 님도 보고 뽕도 땀다.
 寅 50년생 지나치게 친절한 자를 조심하라. 62년생 대세를 역행함은 자멸의 길이다. 74년생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다. 86년생 겁 많은 게가 사냥개 짓는다.	 午 42년생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54년생 지나친 양보는 결코 미덕이 아니다. 66년생 받은 만큼 되돌려 줘야 한다. 78년생 지나친 걱정은 결코 이롭지 못하다.	 戌 46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조심하고 양보하라. 58년생 과거는 잊고 새 출발하라. 70년생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82년생 지성이면 감천이다.
 卯 51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술술 풀린다. 63년생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75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는 날이다. 87년생 오매불망 기다리던 소식을 듣는다.	 未 43년생 애정 운이 좋아지는 운세이다. 55년생 지금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67년생 하는 일마다 손재수가 있겠다. 79년생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이다.	 亥 47년생 하늘이 내 편이니 두려울 것이 없다. 59년생 인생이란 원래 외로운 것이다. 71년생 뿌린 만큼 거둔다. 83년생 웬지 신경 쓰이는 불길한 날이다.